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이 문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설명합니다.
상위 문서: 대장동 개발 사업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주요 쟁점 정리입니다.

목차

1. 개요
2. 배경
2.1. 2021년 이전
2.2. 2021년
2.3. 2022년
2.4. 2023년
3. 성남의 실제 투자 비율
4. 20대 대선의 주요 토론주제
5. 관련 수사 진행상황
5.1. 2021년
5.2. 2022년
5.3. 2023년
6. 정치권 반응
6.1. 더불어민주당
6.2. 국민의힘
6.3. 정의당
6.4. 기본소득당
6.5. 무소속
7. 언론
8. 여론
9. 기타

1. 개요

[편집]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약 70만 평에 대한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의혹을 말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는 성남의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제기되었다. 또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면서 대장동 의혹은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되었다. 이후 검찰 수사,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업 구조와 관련 인물들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2. 배경

[편집]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약 70만 평에 대한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의혹을 말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는 성남의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제기되었다. 또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면서 대장동 의혹은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되었다. 이후 검찰 수사,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업 구조와 관련 인물들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이재명 대통령 "내 인생 걸린 문제 아니다"
"국민의힘 협력 없이라면 야당과 모두 해산"
"국민의힘 협력 없이라면 야당과 모두 해산"
국민의힘 협력 없이라면 야당과 모두 해산"
국민의힘 협력 없이라면 야당과 모두 해산"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검찰이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 모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1년 6개월 만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

15. 머밥

(연도)

* 이번 정권 들어 가장 [redacted]하다고 느낄 때가 2021년 9월 17일 이었죠. 박영수가 김만배 집에서 대장동 [redacted] 관련 문건을 두 시간 반이나 [redacted] 봤다. 문건들을 찍어 찍어서 촬영하기 힘드니 [redacted] 해 달라고 했다. 이 문건들이 박영수 특검팀 수사의 결과물이 되어 [redacted] 되었다. 이 문건들을 [redacted] 해 준 것이 [redacted] 이었다. 이 [redacted] 이 [redacted] 이 [redacted]